

###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 삼겹살은 왜 지역성이 없는가

우리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복간도’를 쓴 안수길(1911~1977) 선생은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살았다. 그 시절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 ‘복간도’를 비롯한 여러 소설이다. 우리 민족의 복간도 이주는 일제강점기 타의에 의한 성격이 강했다. 조선시대 초기 이후로 사실상 국경이 정해지면서 만주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로부터 멀어졌다.

우리 문화의 기념비적인 작품 ‘복간도’를 쓴 안수길(1911~1977) 선생은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살았다. 그 시절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 ‘복간도’를 비롯한 여러 소설이다. 우리 민족의 복간도 이주는 일제강점기 타의에 의한 성격이 강했다. 조선시대 초기 이후로 사실상 국경이 정해지면서 만주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로부터 멀어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농민들은 물론 다수의 상인과 여러 직업인들이 만주를 거쳐 갔다. 일제가 세운 괴뢰 정권 ‘만주국’은 결국 붕괴되었지만, 만주는 당시 우리 민족과 여러 의미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 만주에 남은 많은 동포들이 1949년 중국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살아왔고, 이들이 근래 40년 정도 이어진 한-중 교류사의 주인공인 조선족으로 등장하게 된다.

삼겹살은 돼지농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흑 돼지라고 부르는 두 종의 돼지가 나온다. 재래종과 버크셔다. 재래종은 성격이 과활하고 병에 강하며 고기 맛이 차진 대신 가뭇 기르기 어렵다. 소설에서도 성격이 드센 재래 돼지로 인해 애를 먹는 장면이 나온다. 돼지호열자(돼지플레라) 등으로 예방주사를 놓아야 하는 장면에서, 버크셔만 온순하게 잘 버틴다는 묘사가 나온다. 논산에서 주인공 찬호가 사가지고 온 종이다. 버크셔는 원래 유럽 원산으로 선교사들의 활약과 근대 축산 도입 시기의 계획으로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조선에 들어왔다. 버크셔는 완전히 흑돼지는 아니며, 목둘레와 다리 등에 흰 띠가 여섯 군데 둘러져 있다. 그래서 ‘육백이’이라는 애칭이 있다. 버크셔는 한국에 도입되어 지리산과 제주 등에서 기르면서 재래종과 혼종되었다. 그래서 지리산 흑돼지며 제주 흑돼지의 상당수 혈통이 버크셔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민족사에서 이것은 아마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인데, 결국 안수길 시절의 만주시대를 소환하게 된다. 선생의 소설 중에 ‘복간도’는 1950년대 말 서울에서 씌어졌다. 반면 초기 단편들은 선생이 일하던 만주 현지에서 집필된 작품이다. 그중에 ‘목축기’가 있다. 주인공 찬호는 만주에서 농장 일을 한다. 주로 돼지를 중심으로 농장을 키워 나간다.

한국에서 이것은 아마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인데, 결국 안수길 시절의 만주시대를 소환하게 된다. 선생의 소설 중에 ‘복간도’는 1950년대 말 서울에서 씌어졌다. 반면 초기 단편들은 선생이 일하던 만주 현지에서 집필된 작품이다. 그중에 ‘목축기’가 있다. 주인공 찬호는 만주에서 농장 일을 한다. 주로 돼지를 중심으로 농장을 키워 나간다.

그는 논산에서 몇 시간이고 고생하면서 새끼돼지들을 사서 기차로 싣고 온다. 만주는 당시에 너른 농토에서 돼지를 기를 수 있는 부산물이 꽤 많이 나왔던 모양이다. 전분을 빨고 난 감자 찌꺼기, 콩깍지 등이 풍부해서 돼지의 먹이를 조달하기 어렵지 않았다. 이미 그 시기에 근대적 축산이 이식되고 있었던 것을 소설을 통해

한데 버크셔는 우리나라 주력 돼지로 통상 한돈의 핵심이 된 ‘분홍색 돼지’ 또는 ‘백돼지’의 종축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오키셔, 랜드레이스, 듀록의 조합이 표준적인 한국 양산 돼지의 혈통이다. 병에 강한 형질을 갖고 있고 다산성인 듀록은 감칠맛이 있어서 선택된 종이다. 오키셔와 랜드레이스는 살빛이 희거나 분홍색을 띤다. 듀록은 살짝 갈색에 가깝다. 한국 돼지의 색깔은 이 세 종의 돼지 털색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서 밝고 환한 편이다.

버크셔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일부는 앞서 밝힌 대로 재래종과 합쳐져서 ‘토종’ 돼지로 혼동되

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버크셔는 육질이 좋고 기름 맛이 뛰어나다. 다만 앞의 다른 돼지들에 비해 번식력이나 성장성에서 떨어져 단독 생산이 드물다. 버크셔만 순종으로 따로 구해서 먹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이유다. 어떤 육종 회사에서 기존 품종에 버크셔를 섞어서 까만 반점의 피부를 가진 돼지를 만들어냈는데, 이를 한국에서는 ‘얼룩돼지’라고 한다. 일반 표준 돼지에 비해 고기 맛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 기 고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년의 지혜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세월에 의해 주어지는 훈장 같은 것이라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순간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지혜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원로 현역 문학평론가 유중호 선생은 근작 ‘그 이름, 안티고네’에서 “이른바 노년의 지혜라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데, 젊은 날보다 나아진 것이 있다면, 타인의 행위에서 불쾌감을 느낄 때 저 사람에게는 순탄치 못한 내력이 있겠거니 하고 관용하는 태도가 생긴 것 정도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것의 고통에서 오는 관대함이나 이해가 아니라 내 본적인 문학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얻은 바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체념의 한 형식일 뿐이다.”(같은 책) 이 ‘체념’이야말로 지혜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조차도 노화의 자연스러운 축복이 아니라 꾸준한 문학 독서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게 선생의 답

이다. 끈대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자신이 끈대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는 끈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끈대라는 신랄한 역습도 있다. ‘끈대’를 노인 혐오 표현이 되도록 방지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특질을 가리키는 말로 전용해야 한다. 두 유형의 인간이 있다. A는 제 성숙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는 낯선 것을 불편해 한다. 아차피 그것이 자신을 바꾸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B는 자신이 낯선 것과 만났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늘 궁금해 한다. 그래서 그는 타인에게 관심이 많다. 자신이 모르는 인간 감정의 깊이를 공부해 보려고 동시대의 문학 작품을 펼쳐 보곤 하는 것도 대체로 그다. 이 A와 B가 노인과 젊은이에 대응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청년인 A도 있고 노년의 B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숙이란 결국 쉽 없는 타인 공부의 결과물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끈대’의 본질도 분명해진다. 끈대란 더는 타인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 타인만이 나를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준거 삼아 타인을 바꾸려 한다. 그들이 흔히 충고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저 남들보다 몇 십 년 더 살았

### 의료칼럼



정민영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교수

##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피부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습진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인설(鱗屑)을 동반한 흉반 증상과 약간의 가려움을 특징으로 한다. 신생아와 40~70세 남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다른 습진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이다. 단순히 피지 분비량이 많다고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피지 분비와 관련한 피부의 면역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피부 상재균인 말라세지아(Malassezia) 효모균이 지루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피부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습진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인설(鱗屑)을 동반한 흉반 증상과 약간의 가려움을 특징으로 한다. 신생아와 40~70세 남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다른 습진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이다. 단순히 피지 분비량이 많다고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피지 분비와 관련한 피부의 면역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피부 상재균인 말라세지아(Malassezia) 효모균이 지루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두피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먼저 정수리 부위와 뒷머리의 두피에 홍조가 나타난다. 가려움이 느껴지고, 머리를 감아도 각질과 기름지고 노란색의 젓은 비듬이 쉽게 발생한다. 두피에 붉은 싹모리나 화농성 염증이 자주 생기며, 머리카락이 부쩍 줄어들고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머리를 감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머리카락이 쉽게 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사람은 두피의 노폐물과 지방, 세균 등을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샴푸는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톡톡히 두드리고 세정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야 한다. 또 머리를 손톱으로 긁거나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헤어 용품이나 염색, 파마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샴푸 후 모발을 건조할 때에는 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이용해 빠르게 말리는 것이 좋다. 베게 커버도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 베게 커버에는 자는 동안 피지, 땀, 침 등이 스며들고 체온에 의해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피와 모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여, 자외선을 막아 줘야 한다. 이때 모자가 머리에 꼭 끼면, 두피에서 발생한 열이 배출되지 않아 노폐물 분비를 촉진해 모근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두피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환기를 시켜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루성 피부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비오틴이 함유된 연근, 아스파라거스, 굴, 콩, 미역, 다시마, 김 등이 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다. 지루성 피부염과 탈모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저하된 몸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 社說

## ‘남도 정신의 뿌리’ 서원·사원 적극 보존을

광주·전남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인 서원과 사원이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훼손·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나주 월정서원, 담양 포의사, 함평 총의사, 광주 광산구 영산재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들이 지자체의 재정 투입 순위에서 빈번히 밀리는 바람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훼손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들이 대규모 예산을 들여 건물 짓는 데만 힘을 쏟는 대신 기존 문화재의 관리·운영에는 소홀한 것이다.

특히 1659년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사암 박순(1523~1589)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월정서원은 1974년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광곡마을에 복원됐으나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 직전의 상태에 처했다. 사당과 강

## ‘5·18진상조사위’ 2년 동안 도대체 뭘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발표 명령자와 압매장·행방불명 등 미완의 5·18 과제에 대한 조속한 규명을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5·18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세 차례 조사 활동 보고서를 통해 5·18 기간 민간인 희생자 수를 167명으로 확정하고, 주남마을 인근에서 네 차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5·18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의 사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애초 2년으로 규정된 활동 기간이 임박하도록 핵심 의혹 규명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 9월 국회 동의를 거쳐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해야 했다. 조사위가 마련한 분기별 조사계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게 더 많았다. 지난해 4월 끝났어야 할 조사

과제 선정은 지난 11월에야 이뤄졌고, 조사관 채용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물에 대한 대면 조사를 머뭇거리는 사이 당사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발표 명령 등 책임자 규명의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조사위는 특별법 규정을 들어 조사 내용은커녕 기본적 활동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역시 법상 같은 조항이 있는데도 중요 조사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사위의 막중한 책무를 감안하면 그동안의 성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5·18 진상 규명은 그동안 네 차례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핵심 사안들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왜곡과 편파가 그치지 않고 있다. 조사위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오월의 진실을 밝히는 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콩쿠르. 성인 연주자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악기를 들고 나온 어린 첼리스트의 연주에 많은 이들이 마음을 빼앗겼다. 이날 연주를 들은 로스트로포비치는 “음악적 스케일이 너무나 거대해 상상을 초월한다”며 “첼로는 작지만 재능은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극찬했다.

주인공은 ‘로스트로포비치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콩쿠르에 참가한 열두 살의 장한나였다. 여섯 살 때 자클린 뒤 프래의 ‘엘가 협주곡’을 들은 후 첼로와 사랑에 빠졌던 7개 국제콩쿠르에서 장한나는 최연소 대상과 현대 음악상을 거머쥐며 세계 음악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콩쿠르 우승은 최고의 꿈이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과실이다. 다류멘터리 ‘파이널리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우승해 화제를 모았던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 인상적이었다.

콩쿠르는 클래식 연주자들에게는 실력을 인정받는 등용문이기도 하다. 파이널리스트 조성진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날개

를 달았다. 클래식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조성진의 데뷔시·쇼팽 음반을 구입할 정도로 그는 ‘클래식계의 스타’가 됐다.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쇼팽과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유명 콩쿠르는 음악가의 이름을 탄 것들이 많다. 1958년 제1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미국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버는 이후 자신의 이름을 탄 콩쿠르를 만들었다. 선우예균은 이 콩쿠르의 한국인 최초 우승자였다. 마리 아칼라스 국제 콩쿠르, 파바로티 국제 콩쿠르 등도 눈길을 끈다. 7개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스프라노 조수미의 이름을 탄 콩쿠르가 곧 생긴다는 소식이다. 2023년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Sumi Jo International Singing Competition in Castle)가 창설돼 파리 근교 고성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조수미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에는 카이스트 초빙 석좌교수로 강의를 하는 그는 ‘센세이셔널 콩쿠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후배 음악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 잡기 바란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